

광주 공공기관 8곳 통합 “기관장·시장 임기 맞춘다”

효율성 위해 24→20개로 감축
3곳 기능 강화 “역점사업 추진”
청문회 2곳 추가… 임기 2년 통일

광주시가 공공기관 8곳을 통합하고 3곳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내놨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시장 임기와 맞춰 ‘공공기관 알박기’도 방지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구조혁신안에 따라 광주시의 24개 공공기관은 20개로 감축된다. 손질 대상은 총 11곳으로 이중 8개의 기관이 4개의 기관으로 통합되고, 나머지 3개의 기관은 기능이 강화된다. 유사·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는 취지다.

우선 광주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

는 ‘광주관광공사’로,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은 ‘광주테크노파크’로,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광주복지연구원은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으로, 광주상생일자리재단과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은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으로 합쳐진다.

공공기관 구조혁신은 △유사·중복 기능 조정 및 민간 경쟁력 높은 사무민간이양 등 △기능 중심 조직 통합과 기능 강화 △통합에 따른 고용보장 등 3대 기본원칙에 따라 이뤄졌다.

반면, 광주교통공사(도시철도공사),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국제기후환경센터),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의 기관은 기능이 강화된다.

광주교통공사는 기존 철도 중심으로 운영되는 도시철도공사에 대중교통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기관으로 기능을 확장시킨다는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인수위원회도 시내버스, 철도, 트램 등 광주의 종합적인 교통행정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교통공사’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도시철도공사의 기능 확대는 민선 8기 공약을 구제화시키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은 기후위기, 에너지, 자원순환, 환경교육, 녹색건축 등 5



제51회 강진 청자축제 개막 제51회 강진 청자축제가 개막된 23일 강진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2호 가마에서 조유복 도예가와 도공들이 이틀 동안 1300도의 열을 견뎌 청자 34점을 꺼내 살펴보고 있다. 이중 고려청자 완제품 12점은 즉석경매를 통해 판매된다. 축제는 오는 3월 1일까지 고려청자요지 일원에서 열린다. 김양배 기자

광주사람들 (502/1000)

류진선
교육컨설턴트

광주인사 16면

대 분야를 집적화한다. 2045탄소중립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계획부터 실행까지 총체적으로 접근해 환경친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각오가 엿보인다.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성장단계별 맞춤형 시민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교육, 맞춤형 인재교육 등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로의 위상을 갖게된다. 민선 8기

공약과제인 ‘광주형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을 수행하고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다. **2면에 계속** 김성수 기자

김진표, 정개특위에 ‘비례대표 확대’ 3개안 제출

소선거구제 2개 안… 비례 50명 증원
도농복합형 1개 안… 지역구 ↓ 비례 ↑

김진표 국회의장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는 3개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자문의견을 통해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한 2개의 안과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한 1개의 안 등 3개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냈다.

1번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지역구 선거 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병립형으로 전환하며 비례대표 의석수를 50석 늘리는 내용이다. 비례대표 선출 방법은 전국에서의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법과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 등으로 나뉜다. 또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하

는 것을 허용하는 중복입후보제도 담겨있다. 열세 지역에서의 의석수 확보를 도움으로써 지역주의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2번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지역구 선거 방식과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권역별 득표율을 기반으로 나누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50석 늘리는 내용이다.

이 경우 현행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부작용인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비례대표를 의무적으로 추천하게 하는 보완책이 담겼다.

3번안은 지역구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확대하는 안이다.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역은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며 전

환 과정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일부 조정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내용이다.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각 선거구를 최소 3인에서 최대 10인 선거구로 해 2인 선거구를 배제한다.

비례대표제의 경우 병립형으로 하고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 불신을 줄이고 비례대표 증원 공감대를 확보하고자 개방형 명부 비례대표제 등을 고려하는 안이다.

김 의장의 안은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향후 2개 정도 안을 도출해 전원위원회에 제안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더 특별하게 설계합니다
더 아름답게 짓고 있습니다

클래스, 그 이상을 넘어

—

Beyond the CLASS
중흥S-클래스